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

서 정 호 (연구위원, 3705-6348)

최근 고유가 등에 힘입은 자원강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대규모 플랜트 수주경쟁이 뜨겁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에 의해 조달되고 시공자의 자금조달능력이 수주에 중요한 관건이 되면서 새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경쟁국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장기 외화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국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지원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구조화금융기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 금융회사, 감독당국이 민간부문의 중·장기 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유하고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은 우리나라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전년대비 39.3% 증가한 6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UAE 원전수주를 비롯하여 해양플랜트·담수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해외플랜트 수출은 우리 경제에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플랜트산업은 제조업 중심 수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더러 수입국의 수출진흥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나 수입규

제가 적고 50~60%에 이르는 높은 외화가득률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또한 철강 · 기계 · 전기 · 전자 · 건설 · 금융 · 법률 · 컨설팅 등 전 · 후방 연계산업이 많아 플랜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반 제조업의 1.6배, 서비스업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동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은 자원강국들이 인프라 및 자원개발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

대규모 플랜트 수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중 · 장기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에 있어 시공자의 자금조달능력이 프로젝트 수주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2)]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플랜트 수출 지원과 같은 대규모 중 · 장기 외화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우리 금융산업이 갖는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 민간 금융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역할

대규모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자금지원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규모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각국 ECA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WTO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OECD 수출신용협약(export credit arrangement)에 따른 공적신용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CA는 사업수행회사(SPV)에 대한 출자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대외채무보증(보험) 그리고 국내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자금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에 있어 ECA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

1) 「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산업자원부, 2004년 8월), ADL 추정치, Global Insight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2) 정부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금융 ·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있다.

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해외투자금융 승인액을 대폭 증대시킨 바 있다. 또한 2010년 12월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JBIC을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JFC) 산하에서 분리하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했던 JBIC의 자금지원을 선진국 프로젝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각국의 ECA는 주요한 사업에 대한 금융패키지 구성 및 자금공급은 물론 수주지원, 해당 정부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ECA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CA의 역할 변화와 각국 ECA 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국내 ECA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민간금융 육성의 필요성과 한계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로 우선 ECA가 수출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해 무한정 금융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정부출자 등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차입할 수 있는 외화자금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등 민간부문을 육성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민간 금융회사는 ECA에 비해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있어 보다 강력한 동인(動因)을 갖는다. 상업적 동기가 활발히 작동할 경우 구조화 능력, 사후관리 능력, 리스크분석 능력에 있어 ECA에 비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ECA들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피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complementing function)로 그 기능을 철저히 국한시켜 왔다. 즉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거나 거래 가능한 위험(all marketable risk)'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

ECA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2009년 프로젝트파이낸싱 실적을 보면 프랑스와 일본계 상업은행들이 상단을 점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인데,[3] 우리나라 민간 금융회사들이 플랜트 수출지원과 같은 중·장기

3) PFI Magazine의 2009년 PF 관련 League Table에 따르면 프랑스계 은행인 Calyon, BNP Paribas, Societe Generale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했고 일본계 은행인 Sumitomo Mitsui, Mitsubishi UFJ, Mizuho가 각각 5, 7, 10위에 올라있는 반면, 한국계 금융회사 중에는 KDB가 44위, KB가 83위에 기록되어 있다.

수출금융에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기에는 낮은 수익성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 발주처 중에는 국내 금융회사들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도 많아 자금조달비용 대비 예상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간부문이 참여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평균조달비용이 높아져 입찰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들은 높은 조달비용, 긴 대출기간,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기에는 자금의 운용기간이 길고 장기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통상 대규모 플랜트 건설사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외화자금을 경쟁적인 금리로 조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 간에 만기 미스매치(duration mismatch)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로 조달하여 고정금리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미스매치를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국내에는 각 프로젝트에 내재된 사업위험을 평가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금융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단시일 내에 민간부문이 중·장기 외화대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하며, 선진국 금융회사들에 상당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국의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과 손잡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민간금융의 역할 제고방안

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CA, 금융회사, 감독당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CA는 민간부문의 육성을 조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그 노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우선 ECA는 민간부문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조직목표를 정립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 ECA의 경우 직원의 상당수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파견 받아 수년간 훈련시킨 후 다시 민간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다. 또한 일

본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지원금액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표준융자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비중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즉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민간부문을 육성(incubate)하는 데 나서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조달비용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외프로젝트 시장에서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민간부문의 몫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지도 그 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선순위 대출을 상업은행이 맡도록 하는 등 ECA가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적절한 유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참여를 장기적 수익원의 다변화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중개기능 이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은 상업은행에 매력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즉, ECA의 보증이 부여된 대출자산은 위험가중치가 매우 낮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직접대출 이외에도 지분투자, 금융자문, 자금관리, 파생상품거래 등 다양한 부대거래를 창출함으로써 수익원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제작기업에 대해서도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저리의 외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다.

ECA가 보증한 대출자산은 위험가중치가 낮고 다양한 부대거래를 창출할 수 있어 상업은행에는 매력적인 자금운용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고 가계대출 및 단기 기업대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원 다변화와 미래의 성장 차원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은 해외 프로젝트금융 참여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IF

감독당국도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중·장기 수출금융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